

性理學者로서 陶谷 李宜顯의 衛學論

전 병 옥*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陶谷의 衛學論과 그 정치적 함의 |
| II. 당대의 학술 분위기 | V. 나가는 말 |
| III. 陶谷의 학문적 지향 | |

<국문 초록>

이 글은 陶谷 李宜顯(1669-1745)의 성리학적 衛學論을 다룬 연구이다. 도곡은 정치적으로는 선명하게 老論 洛論系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핵심적 인물이었고 문학적으로는 당대의 文衡으로서 唐宋古文派의 주요한 문장가였다. 정치 활동에 있어서 도곡은 노론 정당을 이끄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대 노론의 주요 인물들을 평가하는 수많은 神道碑銘과 墓誌銘 등을 지어 노론의 의리를 천명하였다. 문학 활동에 있어서도 도곡은 詩와 산문을 고루 짓기는 하였으나 詩의 경우 輓詩가 반 이상이고 산문의 경우 碑誌類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그 대상은 노론의 인물들이다. 그는 文章論에 있어 『朱子文集』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朱子學을 높인 노론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다.

도곡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文學論에 대한 것이 많은데 대체로 도곡이 朱子の 문학론을 계승하면서도 개방적으로 다양한 문장을 섭렵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가 道와 文을 일치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文의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전자를 도곡 문학론의 특징이라

* 고려대학교 철학과 시간강사 / weiwozai@korea.ac.kr

고 하기도 하고 전자와 후자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것이 도곡 문학론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통적인 것은 도곡 문학론의 본령을 주자학적 문학론으로 본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도곡은 기본적으로는 주자학적 문학론을 가졌는데 의외로 폭넓은 개방성을 가지기도 하였다는 것이 기존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설명방식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도곡 문학론의 출발점은 주자학적 문학론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도곡이 처음에 문장 수업을 하였을 때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은 『漢書』와 『莊子』이었지 『四書三經』도 아니었고 朱子의 저작은 더더욱 아니었다. 道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책을 교재로 삼아 문장을 익혔던 것이다. 도곡은 『朱子大全』이 문장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그가 만년에 자신의 문장 수업이 잘못되었다는 회한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자신이 『주자대전』을 읽으며 문장을 익혔다는 뜻은 아니었다. 도곡은 이단으로부터 주자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그 자신이 주자의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주자학을 옹위하려고 한 까닭은 주자의 철학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거나 주자의 문학이 미학적으로 수준 높다는 자신만의 體會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 문장과 문학론을 통해 노론의 의리를 대변한 것이 도곡의 학문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도곡, 이의현, 주자학, 당송고문, 노론, 의리

I. 들어가는 말

陶谷 李宜顯(1669-1745)은 좌의정을 지낸 靄沙 李世白(1635~1703)의 아들이자 당시 노론 낙론계의 영수였던 農巖 金昌協(1651~1708)의 제자로서 숙종조부터 영조조까지 활약했던 정치가이자 문장가이다. 정치적으로는 남인과 소론을 강경하게 배척하는 노론의 입장에 서있었고 문학적으로는 秦漢古文派를 배척하는 唐宋古文派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¹⁾ 정치가로서는 영의정까지 올랐고 문장가로서는 文衡의 자리까지 올라 수많은 應製 작품을 남겼다.

도곡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나마 문학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도곡의 문학에 대해서는 전 시대의 대문장가였던 月沙 李廷龜(1564~1635), 象村 申欽(1566~1628), 擇堂 李植(1584~1647), 溪谷 張維(1587~1638)와 문학비평에 뛰어났던 農巖 형제 등 선배 학자들의 성취를 수렴하여 나중에 후대의 文體反正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그리고 사상사 연구에서 간혹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곡에 대해 朱子學을 옹호하며 이단을 배척한 노론의 의리를 잘 대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 그동안 성리학자로서 도곡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 실제로 도곡은 理氣, 心性을 철학적으로 논한 이론을 남기지 않았다. 도곡의 문집에는 論學書信 자체가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 그래서 도곡은 道學者라기보다는 經世家 내지 文章家로서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 관념적인 당위로 인해 주자학을 고수한다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자학보다는 문장에 뛰어났던 서울근기 지역의 西人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⁵⁾ 하지만 도곡이 어느 정도까지 성리학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성리학을 고수하기 위하여 또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도곡의 학

-
- 1)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229-234쪽 참조. 도곡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가 있다. 기정순, 「도곡 이의현의 문장론 소고」, 『한문학논집』17, 근역한문학회, 1999. 박은정,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송혁기,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일고」, 『한국한문학연구』제31집, 2003.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정순희, 「조선중기 고문론 해석의 문제점」, 『한국언어문학』제47집, 2001. 정옥자, 「도곡 이의현과 그의 문학관」, 『한국사론』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 2) 기정순, 「도곡 이의현의문장론 소고」, 138쪽 참조.
 - 3) 조성산, 같은 곳 참조.
 - 4) 송혁기,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일고」, 209쪽 참조.
 - 5) 정순희, 「조선중기 고문론 해석의 문제점」, 18-19쪽 참조.

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당대의 학술 분위기

李夢龍, 何景明, 李攀龍, 王世貞 등 秦漢古文派 前後七子の 문풍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들도 秦漢古文을 숭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한고문을 숭상하면서 자연스럽게 宋代의 문장을 폄하하게 되었다. 文衡들이 秦漢古文을 숭상하면서 특히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 출사해야 하였던 士子들은 송대의 성리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朱子學을 무시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⁶⁾

16세기 退溪 李滉(1501~1570)나 栗谷 李珣(1536~1584)이 활약하던 시기에는 朱子學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자가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외경심은 있었지만 진한고문과의 등장으로 주자학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에서 明이 멸망하고 淸이 들어서면서 주자학이 中華의 질서이고 中華의 질서가 곧 주자학이라고 여겼던 사대부들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對淸 관계에 있어서는 華/夷의 구분보다 君/臣의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서 仁祖가 이미 城下의 맹약을 맺은 이상 마음으로부터 淸나라를 皇帝國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華/夷의 구분을 내세워 對淸 외교의 직임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사대부들에게 君/臣의 의리를 내세워 폄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⁷⁾

6) 조성산, 같은 곳 참조.

7) 『陶谷集』『雲陽漫錄』, 丈巖鄭公於肅廟末年, 語余曰: “近聞極可驚心之言. 我國將爲夷狄禽獸矣.” 余問: “何謂也?” 鄭公曰: “有時宰家子弟出接做工, 談話之際, 乃曰: ‘宋某真大逆不道也.’ 座有吾儕中人, 詰曰: ‘少輩雖嫉尤菴, 猶不敢指爲逆, 君乃爲是言, 豈欲附會南人, 毆尤菴於二心孝廟之罪耶? 其人笑曰: 非也. 南人之以貶薄孝廟構罪者, 實爲無據. 吾豈爲是哉?’ 曰: ‘然則豈以越海招寇指日犯關

주자 성리학으로서는 17세기에 큰 위기를 맞은 셈인데 이때 주자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람이 尤庵 宋時烈이었다. 우암은 華/夷의 구분에 엄격하였던 주자의 입장을 부각시켜 北伐論을 정당화시켰고 주자학의 절대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주자학을 상대적 진리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에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우암은 주자 절대주의를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시켰다. 그는 出處를 주자의 의리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문장도 주자와 동일한 문체로 썼다. 머리 모양이나 복장도 명나라 풍속처럼 따라하였고 혼인 풍습도 朱子の 방식대로 고쳤다.⁸⁾ 우암이 湖西 지역에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을 때 서울경기 지역에서 호응해 온 이가 농암 김창협이었다. 다만 우암이 완전히 주자를 재현하려고 한 것과는 달리, 靜觀齋 李端相(1628~1669)과 拙修齋 趙聖期(1638~1689) 등의 영향도 받은 농암은 훨씬 유연한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朱子를 가장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른 학문에 대해 심하게 배척하지는 않았다. 농암은 불교에 호의적이었고 주자학을 멸시하는 학자들과도 긴밀한 교류 관계를 맺었다.⁹⁾ 우암이 주자학을 그토록 숭상하고 나선 것도 어쩌면 당시의 일반적인 학문 분위기가 주자학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숙종 34년 경연의 한 장면은 주자학에 대한 당시의 대립하는 두 시각을 잘 보여준다.

上이 晝講에 납시었다. 이때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連講하고 있었는데 이날

之語, 而成其罪耶?’ 其人又笑曰: ‘此語尤甚虛謊, 三尺童子所不信, 吾豈爲是哉?’ 曰: ‘然則豈以未後定國本後疏爲罪耶?’ 其人曰: ‘亦非指此也. 吾所以名之爲逆者, 別有在. 吾將言之矣. 夫我國之服事清國, 固非本心, 然既奉表稱臣, 則君臣之分已定矣. 某以玄應陪臣, 乃欲謀害天王, 言言稱復讐雪恥, 不但言之於家, 乃敢言之於君父. 天下豈有如此悖逆之陪臣哉?’”

- 8) 우암은 집안 부녀의 머리를 雙紉로 바꾸었고, 혼인 풍속과 관련하여서는 모족과 처족의 촌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남들이 경악하고 비방하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 가히 집착이라고 할만하다. 조성산, 위의 책, 160-164쪽 참조.
- 9) 조성산, 위의 책, 184-191쪽 참조.

의 講을 마치고서 검토관 任守幹이 나아가 아뢰기를, “『節酌通編』은 朱子의 文字이니 어찌 進講할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閒漫하게 酬酢한 내용이니 帝王의 治平之術에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序·記·祭文·墓誌 등의 文字는 더욱 進講할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進講을 시작하였으니 우선 封事 이상에 한해서 다 진강하고 그 나머지는 정지하기로 하고, 歷代 名臣의 奏議를 가려뽑아서 進講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강관 李觀命이 아뢰기를, “大賢의 한 마디 한 행적, 一動一靜이 모두 흠모해서 모범으로 삼을만한데다 친구들 사이에 酬酢한 問答은 對證命藥과 같은 점이 있으니 모두 省察 공부에 절실합니다. 어찌 閒漫하다고 하며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지사 李寅燁이 임수간의 말을 편들자 이관명이 아뢰기를, “朱子의 片言 隻字가 義理가 아닌 것이 없는데 後學이 어찌 감히 함부로 평할 수 있겠습니까. 임수간과 이인엽은 모두 몹시 무엄합니다.”라고 하였다. 물러나서 또 疏를 올려 그들의 설을 강력히 공격하였더니 임수간이 소를 올려 辨斥한 표현은 더욱 패악하였다. 상이 한창 이인엽을 총애하고 신임하던 터에 이인엽이 임수간을 편들자 상도 임수간을 편들고 이관명을 질책하였다.¹⁰⁾

『節酌通編』은 퇴계의 『朱子書節要』와 愚伏 鄭經世(1563~1633)의 『朱文酌海』를 우암이 합편한 책이다. 인용문의 이 일화는 「陶峽叢說」에도 실려 있다. 이관명은 말썬씨가 썩 좋지 못해서 두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혼자서 “朱子是 천하의 朱子이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존송하는 분인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나를 몰아세우니 내가 어떻게 물리지 않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도곡은 당시의 학자들 가운데 주자학을 경시하는 측과 존송하는 측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

10) 『肅宗實錄』권46, 御書講. 時於召對, 連講《節酌通編》, 是日講訖, 檢討官任守幹進曰: “《節酌通編》, 乃朱子文字, 豈不合進講, 而此不過朋儕閒漫酬酢, 不切於帝王治平之術, 序、記、祭文、墓誌等文字, 尤不合進講, 然既已進講, 姑限封事以上畢講, 其下則停止, 抄出歷代名臣奏議, 進講爲宜.” 侍講官李觀命曰: “大賢一言一事, 一動一靜, 皆可慕則, 而朋儕閒酬酢問答, 有同對證命藥, 皆切於省察之工, 豈可謂之閒漫而棄之?” 知事李寅燁右守幹言. 觀命曰: “朱子片言隻字, 莫非義理所在, 後學安敢妄論? 任守幹、李寅燁, 俱極無嚴.” 退又申疏, 力斥其說, 守幹疏辨之語, 益悖. 上方寵任寅燁, 而寅燁右守幹也, 故上亦右守幹, 而非責觀命.

다.¹¹⁾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록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尹鏞가 『中庸』에 개정 주석을 내서 朱子를 誣辱한 뒤로 南北의 黨이 모두 朱子를 존송하지 않았고 朴世堂과 崔錫鼎이 朱子의 經書 註釋을 고치면서 더욱 비방하고 업신여겼다. 그 黨은 또 朱子가 宋時烈이 존송하는 분이라고 해서 드디어 朱子에 대해서까지 원한을 품어 함께 배척하였다. 어리고 폐악한 무리들은 이름까지 부르며 거리낌없이 비난하였다. 송시열이 저 한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4,5백년전의 중국 先聖이 東國의 黨論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함께 험한 꼴을 당한단 말인가. 괴이한 일이다. 입수간은 小北이었고 이인엽은 崔錫鼎의 黨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斯文의 變怪가 이에 이르러 최악에 다다랐다.¹²⁾

우암에 반감을 가진 소론과 일부 남인은 그 반감을 주자학에 대한 경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노론 내부에도 진지하게 주자학을 연구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주자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니 당연히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주자학을 존송한다고 하더라도 말뿐일 수도 있고 그저 마음 한편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그치는

11) 『陶谷集』「陶峽叢說」, 尤翁嘗取節要酌海兩書, 合成一冊. 肅宗末年, 進講此書, 李相子賓與任守幹同爲玉堂官入侍, 李判書寅燁以經筵官入. 任也極言朱子閒漫書札, 不必進講於法筵. 李相言其不然, 任又盛氣辨斥. 李判書右任言, 兩言迭發, 皆斥李相. 李相素乏談辨, 不能抵當, 含意而退, 自歎曰: “朱子乃天下之朱子. 非我所可私, 而兩人怒目斥我, 我豈不困乎?” 於此亦可見時輩不尊朱子之一端矣.

12) 『肅宗實錄』권46, 蓋自尹鏞改註中庸, 誣辱朱子之後, 南北之黨, 皆不尊朱子, 而朴世堂·崔錫鼎, 改朱子經書註釋, 益肆譏侮, 其黨又以朱子是宋時烈所尊也, 遂移仇朱子, 竝加排斥, 年少悖妄之徒, 至或名呼, 而詆訾無忌. 時烈雖見嫉於一隊, 四五百載前, 中國先聖, 何與於東國黨論, 而同被其厄哉? 其亦怪矣. 守幹是小北, 寅燁乃錫鼎之黨, 故其言如此. 斯文變怪, 至此而極矣. 도곡도 거의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陶谷集』「陶峽叢說」, 蓋素嘗輕視朱子, 故見朱子註解, 妄生疵摘之心, 以至於此, 一則可哀. 又尤翁每以尊崇朱子爲主, 故其惡尤翁者, 移怒於朱子, 凡係朱子之言, 必思排斥. 朱子以累百年前中國人, 何與於今日是非, 而橫被其忿嫉如是哉? 還可笑也.

경우가 많았지 우암처럼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신봉하고 정열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당시에 많지 않았다고 하겠다. 도곡에 따르면 당시 玉堂의 관료조차도 주자의 기본적인 저작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한다. 『大學或問』 같은 주자의 글을 읽더라도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였지 주자 철학을 연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자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것이다.¹³⁾ 도곡은 「陶峽叢說」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화를 소개해 놓고 있다.

내가 젊을 때 崔昌大와 함께 翰苑의 同僚가 되었는데 최창대가 朱子의 學問을 취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너무 놀라서 질책하기를, “자네가 감히 이런 악담을 하다니 자넨 하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라고 하니, 최창대가 웃으며, “자넨 세상사람들이 하는 말에 얽매어있네. 자네가 한번 朱子의 太極 問答를 읽어보게. 그야말로 장사꾼들의 말투네. 어찌 조금이라도 涵養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겠나.” 라고 하였다. 나는 더욱 놀랐다.¹⁴⁾

崔昌大(1669~1720)는 暹川 崔鳴吉(1586~1647)의 증손자로서 易에 조예가 깊었고, 程朱가 易에 대해 伏羲와 文王의 本義를 온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하였다고 한다.¹⁵⁾ 도곡이 이 글을 작성할 때 최창대는 이미 대사성을 역임하고 난 뒤였다. 도곡은 주자를 멸시하는 인물도 대사성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

13) 『陶谷集』「陶峽叢說」, 上頗摘朱子集註之誤, 余力辨其不然, 且言“朱子定著集註, 用盡一生心力, 其裁度去就, 置水不漏, 一字一句, 皆有意義, 不可移易. 聖上若觀論語或問, 則可知註說之十分的當矣.” 有一玉堂官進曰: “此言未免誤達矣. 朱子嘗著大學或問, 而未嘗有論語或問矣.” 余曰: “玉堂官必未及見論語或問而有是言矣.” 語未畢, 其人遽發他言, 故不得竟其說.

14) 『陶谷集』「陶峽叢說」, 余少時, 與崔昌大爲翰苑同僚. 昌大肆言朱子學問之無可取, 余極駭責曰: “君乃敢發此惡口, 獨不畏上天乎?” 昌大笑曰: “君亦泥於世俗之論矣. 君試看朱子太極問答, 直是賈豎辭氣. 豈粗有涵養之人所可爲者乎?” 余益駭.

15) 조성산, 위의 책, 50쪽.

이다. 이 일화 자체는 도곡과 최창대 모두 32세 때의 일인 듯한데 사실 도곡의 반응 또한 흥미롭다. 최창대는 그래도 『朱文公文集』을 읽고 朱子和 陸象山의 太極 問答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도곡은 이 당시 그런 글을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도곡은 심정적으로 주자학을 존송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을 뿐 실제로 주자 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주자를 비판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秦漢古文派와 가까운 사람들이 주자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자를 심정적으로 존송하는 사대부들조차도 주자의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고 하겠다.

Ⅲ. 도곡의 학문적 지향

도곡의 학문 역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7세에 부친의 洪川 임소에서 『訓蒙字會』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였다. 대사간을 지낸 李穡 등과 부친에게 經史에 걸쳐 기본적인 글을 두루 배웠으며 弱冠 이전에 家藏 도서를 거의 읽었다. 12세에 古風詩를 시작으로 詩 습작을 시작하여 17세에 이미 시 짓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21세부터 25세까지 『莊子』·『楚辭』·『論語』·『詩集傳』·『韓文』·『漢書』를 수백 번 읽었고, 古律詩를 몇 천 수나 지었으며 散文·駢麗雜製를 몇 편 지었다. 26세가 되던 갑술년(1694, 숙종 20)에 豐壤 成陵寺에 寓居하던 農巖을 뵈고 『論語』를 배웠으며 經史를 講究하고 古人의 문장을 두루 읽고 싶은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해의 환국으로 노론이 집권하면서 부친의 권유로 별시에 응시하여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올르게 되었다. 청요직을 두루 거치며 관직생활에 쫓기던 도곡은 임인년(1722, 경종2)의 獄事에 연루되어 雲山郡으로 유배되면서 54세의 나이로 3,4년 동안 매일 課程을 정해 놓고 『論語』·『孟子』·『中庸』·『大學』·『詩集傳』·『書傳』·『周易』·『

禮記』、『小學』、『朱書』、『韓文』을 반복해서 읽었다. 도곡이 집중적으로 독서하고 문학 수업을 한 시기는 어린 시절과 이 4년의 유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⁶⁾

도곡은 經學과 文章論에 밝았던 農巖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곡이 농암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신 것은 분명하나 농암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기간은 길지 않은 듯하다. 도곡이 농암에게 배운 시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석사과정 정도의 시기이고 배운 기간은 한 학기도 채 되지 않는다.¹⁷⁾ 도곡이 농암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운 과목에 대해서는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紀年錄」에서는 『論語』를 배웠다고 하였고,¹⁸⁾ 「陶峽叢說」에서는 또 문장짓는 법을 배웠다고도 하였다. 59세 이후에 지은 「陶峽叢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經書는 선비의 本根이다. 많이 읽어 得力하면 위로는 學問을 할 수 있고 중간 정도면 文章을 지을 수 있고 못해도 場屋의 高手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 생각이 잘못 들어 여기에 힘쓰지 않고 『南華真經(莊子)』를 탐독하였다. 전질을 오륙십 번이나 읽었고 그 중 좋아하는 대목은 사오백 번이나 읽었으며, 「齊物論」의 경우는 더욱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손과 발이 덩실덩실 춤추었다. 다 읽고서는 글을 짓는 것이 쉬워져서 잠깐 사이에 열 장은 써내려갔는데, 좋은 대목과 못한 대목이 뒤섞여서 불만하지는 못하였다. 한번은 農巖 先生께 보였더니 農巖께서 자못 칭찬해주셨지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고 『漢書』와 『史記』를 읽도록 권하시며 손수 12傳을 뽑아서 주셨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그 대목을 삼백 번이나 읽었다. 그 뒤에 글을 지어 農巖께 보였더니

16) 『陶谷集』 「紀年錄」 참조.

17) 도곡은 26세 정월에 豐壤에서 농암에게 배우기 시작하여 3월에 외할머니 상을 당하고 4월에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9월에 별시에 급제하였다. 『陶谷集』 「紀年錄」 참조.

18) 『陶谷集』 「紀年錄」, 二十年甲戌 [二十六歲] 正月, 負笈從農巖先生, 講質論語. [農巖時寓居豐壤成陵寺. 農巖問余所志. 余對曰: “…… 欲仍不赴舉, 從遊先生長者, 講究經史, 博觀古人文章以自澆灌, 免作樵陋無聞之人, 是吾志也.” 農翁喜曰: “子之言善矣. 今人大抵牴心科業, 不知其他. 子能知科舉外有許多用心處, 其進殆未可量. 須常持此心, 益加勉旃.]

文理가 넉넉하고 짜임새가 탄탄해서 이전보다 훨씬 낫다고 평하시며 멈추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고 하셨고 이어 문장을 엮는 軌範을 가르쳐주셨다. 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늘 服膺하고 있지만 宦途에 浮沉하느라 잊어버리게 되었고 讀誦하는 공부를 거의 全廢하게 되었다. 임인년에 謫所에 있으면서 비로소 『四書三經』, 『禮記』, 『小學』, 朱書를 읽게 되었지만 노년에 책을 읽어 어찌 得力이 있겠는가. 지금껏 兀然히 문자 속이 없는 庸夫가 되어 있으니 부끄럽다.¹⁹⁾

‘經書는 선비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은 사대부가의 자제로서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인식이 깊어지는 데는 임인년 이후 몇 년간 『四書三經』 등을 읽은 것이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도곡은 21세부터 25세까지 집중적으로 독서하던 시기에는 처음에 『莊子』를 탐독하였고 농암의 지도를 받은 뒤에는 『漢書』와 『史記』를 읽었다. 그 목적은 좋은 문장을 짓는 것이었다. 농암으로부터 배운 문장 짓는 방법은 우선 좋은 글을 뽑아 몇 백번 讀誦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문장 엮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문장 엮는 법도에 대한 지식은 간단한 내용일 것이고 관건은 讀誦일텐데, 唐宋古文의 대가로 알려진 농암이 권한 독송의 자료는 『漢書』와 『史記』의 列傳 12편이었고 유교 경전은 아니었다. 도곡이 아쉬워하는 대목도 벼슬길에 오른 뒤로 진득하게 讀誦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도곡이 농암에게 『논어』를 배웠다고는 하나 깊이 있는 性理說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던 듯하다.

도곡이 농암을 만나기 전에 도곡이 읽은 책은 ‘文必秦漢, 詩必盛唐’을

19) 『陶谷集』「紀年錄」, 經書爲士之本根. 若多讀得力, 則上可爲學問, 中可爲文章, 下亦不失爲場屋高手. 而余於少時, 意思誤入, 不務爲此, 乃耽讀南華, 全帙讀至五六十遍, 就其中心所喜好者, 讀幾至四五百遍, 至於齊物論則尤酷好之, 不覺手舞足蹈. 讀既, 下筆容易, 頃刻掃盡十紙, 而蛟蚓相雜, 不足觀也. 試以舉似於農巖先生, 農巖頗賞之, 而病其荒蕪無剪裁, 勸讀班史, 手選十二傳以授之. 遂致精讀至三百遍, 是後作文示農巖, 以爲文理有餘而結構不疏, 大勝於前, 使之不住用工, 仍教以綴文軌範. 余心常服膺, 而宦途浮沉, 遂至忘失, 讀誦之工, 幾乎全廢. 壬寅在謫, 始讀四書三經禮記小學朱書, 而老年讀書, 豈有所得? 到今兀然作無文之一庸夫, 可愧也已.

표방한 秦漢古文派가 일반적으로 읽는 서목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농암도 도곡에게 唐宋古文家의 문장을 읽도록 권하지도 않았다. 유교의 경전만 읽고 좋은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도곡도 하지 못하였고 농암도 권하지 않은 바였던 것이다. 유교 경전만 읽고 場屋의 高手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學問’은 性理學이거나 聖學을 말할 테니, 학문의 본질을 성현이 되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도곡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도곡은 처음에 많은 經史를 읽고 학식을 잘 갖춘 사대부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랐으며 그 생각은 농암을 만난 뒤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임인년 이후의 일이다. 유교 경전만 읽고도, 아니 유교 경전만 읽어야만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3,4년 동안 유교 경전만 읽은 것이라 하겠다. 유교 경전만 읽어야 좋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 것은 주자의 문장관인데, 주자가 말하는 좋은 문장이란 좋은 사상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陳才卿이 말했다. (“李漢序”에서) ‘文은 道를 깨는 도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六經은 文인데 거기서 말한 내용이 모두 이 道理이니 어떻게 병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이 文은 모두 道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어찌 文이 도리어 道를 켈 수가 있겠는가. 文은 文이고 道는 道이다. 文은 단지 밥 먹을 때 반찬일 뿐이다. 만약 文으로 道를 켈다면 이것은 本을 末로 보는 것이고 末을 本으로 보는 것이다. 말이 되겠는가? 그 뒤로 문장가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²⁰⁾

주자는 道를 온전히 체득하면 그 道를 표현할 수 있는 文은 자연스럽

20) 『朱子語類』권139, 才卿問: “韓文李漢序頭一句甚好.” 曰: “公道好, 某看來有病.” 陳曰: “‘文者, 貫道之器.’ 且如六經是文, 其中所道皆是這道理, 如何有病?” 曰: “不然. 這文皆是從道中流出, 豈有文反能貫道之理? 文是文, 道是道, 文只如喫飯時下飯耳. 若以文貫道, 卻是把本爲末. 以末爲本, 可乎? 其後作者皆是如此.”

게 형성되리라고 여겼다. 더구나 유교 경전은 道를 체득한 성인이 道를 조리있게 설명해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제대로 읽으면 道를 체득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히 자신도 글을 잘 쓰게 되리라고 보았다. 도곡은 주자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유교 경전을 많이 읽고 그 조리있는 글을 자주 접한 덕에 문장을 잘 짓게 되는 것은 유교 경전을 읽는 원래 목적에 맞는 것은 아니다. 유교 경전을 읽는 목적은 문장을 잘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學問’을 하기 위해서이다. ‘학문’이 이루어지면 문장은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지만, 문장 잘 짓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성인의 道는 육경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 육경은 당연히 學者가 다 같이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이며 비록 말단인 사장을 공부하려 하더라도 이것 말고 구할 데가 없다. 文만 있고 理가 없으면 文이라고 할 수 없다. 詞와 理가 다 갖추어진 것을 찾는다면 성현의 경전 말고 어디에서 찾겠는가. 그래서 兩漢 이래의 諸公부터 唐宋八大家에 이르기까지 모두 經術에 근본을 두고 글을 지은 것이다.²¹⁾

여기서 말하는 ‘學者’도 당연히 성인의 道를 배우려는 사람을 지칭할 것이다. 道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든 문장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든 다 같이 읽어야 할 책이 유교 경전이라는 말이다. 도곡의 학문적 지향이 문장을 짓는 것에서 道를 배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4세의 나이에 새삼스럽게 문장을 잘 짓기 위해서 사서삼경을 읽는다는 것은 좀체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사서삼경을 읽는 효용성에 대해 문장을 잘 지을 수 있게 된다거나 과거 시험장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된다고 소개한 것은 문장을 잘 짓기 위해서, 혹은 과거 시

21) 『陶谷集』「雲陽漫錄」, 聖人之道, 具在六經, 固學者所共刳心, 而雖欲爲詞章之末, 外此亦不可他求. 盖文而無理, 不可謂之文, 欲其詞理俱備, 捨聖經何適矣? 是以上自兩漢諸公, 以至唐宋八大家, 皆本經術爲文. 송혁기, 위의 글, 209쪽 재인용. 표현은 일부 고침.

힘을 잘 보기 위해서 성현의 경전을 등지고 다른 책을 읽으려고 드는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성리학에서 요구하는 일상적 도덕 실천에 새삼스럽게 주의를 기울였다. 『小學』에 대해서는 어려서 읽었을 때나 유배지에서 다시 읽었을 때 모두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다고 고백하였고, 『近思錄』의 경우도 늦게서야 몇 번 읽고 심상하게 玩釋하였을 뿐 어떻게 제대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²²⁾ 임인년의 유배 생활에서 읽은 도서목록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朱書』이다. 『기년록』을 보면 도곡은 이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讀誦한 적은 있지만 독실하게 공부한 적은 없었다.²³⁾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朱書』에 사서삼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朱子大全』이라는 책은 실로 義理의 府庫이며 書 부분은 心術의 隱微한 영역부터 應事接物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읽어보면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사람을 感發興起시키는 점이 있다. 退溪先生이 緊切한 말을 뽑아서 『節要』 10책을 만들었다. 또 序, 記, 封事 등 第篇도 大義理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愚伏 鄭公이 또 抄書하여 『酌海』 8책을 만들었고 尤菴先生의 補遺가 4책이다. 배우는 이들이 朱書를 독파하기 어렵거든 우선 두 책을 鑽研해도 평생토록 다 쓰지 못할 것이다. 儒士가 힘을 써야 할 곳은 四子말고는 이것이 가장 먼저이다. 이것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九流百家를 두루 섭렵하더라도 心地가 끝내 황폐한 꼴을 면할 수 없고 識見이 끝내 고루한 꼴을 면할 수 없을 테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도 심상하게 尊奉하기만 해서 書와 封事를 여러 번 讀誦하기는 했지만 篤實한 工夫를 하지는 못

22) 『陶谷集』「陶峽叢說」, 余少時, 盖嘗學習小學而不能着力. 在謫, 又讀之而事同炳燭, 尤無可言. 近思錄晚讀數三過, 尋常玩釋, 而亦未有入頭處. 終爲悲歎窮廬之人, 負愧而已.

23) 도곡의 가장도서 목록에 『주자대전』과 『주자어류』가 있고 도곡이 약관 이전에 가장도서를 거의 다 읽었다고 하였으니 읽기는 읽었을 테지만 54세 이전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읽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30대 시기에 최창대와 대화에서 그저 경악스러워할 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지금은 이미 나이가 늙어 그저 望洋의 탄식만 절절하다. 가끔 생각나면 저도 모르게 땀에 등을 짝 적신다.²⁴⁾

도곡은 『朱子大全』을 읽는 이유는 문장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義理의 府庫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삶의 모든 규범을 자상하게 다 설명해주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 그래서 四書 다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 이 책이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채 다른 책을 아무리 읽어본들 마음은 황폐하고 식견은 고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도곡의 학문 지향점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겠다. 도곡은 경서를 讀誦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수양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心經』을 높이 평가하며 ‘心學’을 권장한 것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IV. 도곡의 衛學論과 그 정치적 함의

흔히 도곡을 당송고문파로 분류하지만, 사실 도곡이 농암을 만나기 전까지 집중적인 독서 기간에 읽은 책은 진한고문파들이 읽은 책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擬古文을 배격하고 平暢簡奧한 문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당송고문파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²⁶⁾ 그런

24) 『陶谷集』「陶峽叢說」, 朱子大全一書, 實義理府庫, 而書一類, 自心術隱微之間, 以至應事接物之節, 無不備具. 見之, 有若親承提誨, 尤使人有感發興起之意. 退溪先生抄其緊切語, 作節要十冊, 且序記封事等諸篇, 亦無非大義理所關, 愚伏鄭公抄選, 又加抄書, 爲酌海八冊. 尤菴先生補遺爲四冊. 學者如難讀破全書, 姑就此二書鑽研之, 亦可終身受用不盡矣. 儒士之所用力, 四子外, 此當爲先. 苟不讀此, 雖博涉九流百家, 心地終不免茅塞, 識見終不免孤陋, 何益之有? 余亦尋常尊奉, 書與封事, 蓋嘗屢次讀誦, 而未能用篤實工夫. 今已年老, 徒切望洋之歎. 有時思之, 不覺愧汗洽背也.

25) 『陶谷集』「陶峽叢說」, 心經獨傳而猶未大行, 退溪先生偶見於逆旅而喜之, 首起而表章之, 以爲不在四子近思錄之下. 由是世輒與近思錄並稱, 此其前後此書顯晦之大端也. 此書雖晚出, 於心學工夫, 甚爲要緊, 學者其可不劬心於斯乎?

26) 기정순, 앞의 글, 147-150쪽 참조.

데 그가 만년에 명대의 문장을 네 가지로 구분한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를 단순히 당송고문파라고만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²⁷⁾ 그에 따르면 명대의 문장은 方孝孺처럼 義理·學術로부터 文詞로 발출된 것이 한 파이고,²⁸⁾ 陽明처럼 이단의 학문에 조예가 깊어서 문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한 파이며,²⁹⁾ 이른바 진한고문파가 한 파이고,³⁰⁾ 經世家の 문장이 한 파이다.³¹⁾ 세 번째 한 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장을 짓기 위해서 별도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굳이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의 구분법을 적용한다면 세 파는 모두 당송고문파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송고문파에게 있어 ‘古文’이란 ‘후대의 문장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는 옛날의 진솔한 문장’을 뜻하기 때문에 문투가 예스럽지 않고 일상의 어투로 되어 있는 문장도 역시 ‘古

- 27)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에 대한 정의는 다소 복잡하다. 중국의 경우 擬古門派와 古文派로 구분되는 듯한데, 조선의 경우 주자학이라는 변수와 결합하면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 즉 진한고문파는 주자학에 대한 경시 풍조를 띤 학파이고 당송고문파는 주자학을 존송하는 경향을 띤 학파로 구분된다. 하지만 조선의 당송고문파가 주자학을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내었다고 해서 당송고문의 본질이 주자학과 같은 것이라고 하기는 힘 든다. 당송고문파가 일반적인 문장론과 주자의 문장론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자는 소동파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폄하하기도 해서 평가가 일치하지 않았고 曾鞏의 문장을 가장 순정하다고 높였다.
- 28) 『陶谷集』「陶峽叢說」, 明文集行世者, 幾乎充棟汗牛, 不可殫論, 而大約有四派. 姑就余家藏而言之, 方遜志·劉誠意·宋潛溪, 以義理學術, 發爲文詞者也, 此爲一派. 遜志尤滂沛浩瀚, 有明三百年文章, 絕無及此者, 潛溪其亞, 而誠意又潛溪之匹也.
- 29) 『陶谷集』「陶峽叢說」, 陽明白沙, 以異學爲文, 而陽明之文尤爽. 新學則當斥, 而文則可取. 以至李卓吾之詭怪, 由陽明而騰上益肆者也. 此三集當爲一派.
- 30) 『陶谷集』「陶峽叢說」, 空同·大復·弇州·滄溟, 學先秦諸子而創爲新格者也, 此當爲一派. 鹿門·荊川·升菴·震川·牧齋, 學古而語頗馴, 不爲已甚者也. 就中升菴之麗縹, 牧齋之蕩溢, 稍離本色, 而故當屬之於此, 不可爲王·李之派. 徐文長·袁中郎, 又旁出而以慧利爲長, 此二人亦不可爲王·李派, 當附入於此派.
- 31) 『陶谷集』「陶峽叢說」, 李西涯·張太岳·葉蒼霞爲廊廟經世之文, 又當爲一派, 而西涯之富博, 亦可爲詞人之宗矣.

文'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년의 도곡은 당연히 이들 중 첫 번째 파를 지향하였을 것이다. 관건은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義理·學術에 얼마나 조예가 있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장론은 성리학의 우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성리학자로서 도곡은 성리학의 절대적 위상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노력하였다.

성리학은 涵養省察과 格物致知의 지난한 공부 과정을 거쳐야만 그 학문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볼 때 성리학에 심정적으로 동조한다고 해서, 혹은 주자가 제시한 몇 가지 규범을 지킨다고 해서 성리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衛學 활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도곡이 성리학에 그다지 힘을 쏟지 않던 시기에 朱子를 비방하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던 것도 일종의 소극적 衛學論이라고 할 수 있다.

논론의 의리는 도곡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성리학의 가치를 지키는 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도곡이 주자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견지한 衛學論이며 논론이 공통적으로 견지한 위학론이다. 논론의 의리란 華夷의 구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자학을 절대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군자와 소인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솔의 세 발처럼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한 가지 일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도곡의 경우 華/夷의 구분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春秋의 法은 전적으로 國統을 중시한다. 朱子가 綱目을 지을 때 武后가 僭位한 날에 中宗의 해를 붙이고 武后의 해를 分註하였으며 큰 글씨로 그 아래에 “帝는 房州에 있었다.”라고 썼다. 이것은 『春秋』의 “公은 乾侯에 있었다.”라고 쓴 용례를 따른 것이다. 呂后가 稱制한 기간은 惠帝 뒤 文帝 전이어서 연호를 붙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해를 分註하여 그 僭位를 인정해주지 않았으

니 그 義가 엄격하다 할만하다. 더구나 夷狄이 中夏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천고의 큰 변괴여서 더더욱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金宇顥이 『宋元綱目』을 지으면서 宋이 망한 뒤로는 元의 年號를 크게 썼으니 천하를 통일하였다는 이유로 正統의 위상을 부여한 것이다. 『春秋』에서 吳·楚가 僭王해도 깎아내리고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용례로 재단해 보면 大義에 어긋나는 것이 심하다. 만일 朱子が 여기 나시면 필시 呂后와 武后에게 적용했던 용례를 사용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宇顥은 논할 것도 없었고, 中國으로 말해보더라도 지금 淸이 또 夷狄으로서 통일하여 胡人和 漢人이 뒤섞여 분별이 없으니 元史를 지을 때 또 필시 이와 같을 것이다. 개탄할만하다.³²⁾

주자는 正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가 실제로는 황제가 되더라도 역사적 평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김우옹은 비정통인 夷狄 황제의 연호를 썼으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淸나라가 현재 천하를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비정통이므로 결코 그 연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시 어떤 이는 한번 君臣 관계가 맺어졌으면 淸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 상황이었다.³³⁾ 이런 논리에 대해 도곡은 주자의 정통론을 내세워 君臣 관계도 허구인 경우가 있으므로 淸나라에 충성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사실상 화/이의 구분은 주자학의 절대성 강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군자/소인을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蕩平策을 반대하는 주장으

32) 『陶谷集』「雲陽漫錄」, 春秋之法, 專以國統爲重. 朱子作綱目, 於武后僭位之日係中宗之年, 而分註武后之年, 大書其下曰帝在房州, 盖用春秋公在乾侯之例. 至於呂后稱制, 在惠帝後文帝前, 無年可係, 故只分註其年, 不與其僭, 其義可謂嚴矣. 況以夷狄入主中夏, 此誠千古大變, 尤不可不十分致嚴. 而金宇顥作宋元綱目, 乃於宋亡之後, 大書元年號. 以其混一天下, 歸之以正統也. 律以春秋吳楚僭王, 削而不稱之例, 則其違背於大義甚矣. 如使朱子作此, 必用呂武之例無疑. 宇顥固不足論, 雖以中國言之, 卽今淸又以夷狄混一, 胡漢錯雜, 無所分別, 作元史, 亦必如此矣. 可慨也已.

33) 『陶谷集』「雲陽漫錄」, 夫我國之服事淸國, 固非本心, 然既奉表稱臣, 則君臣之分已定矣. 某以玄廕陪臣, 乃欲謀害天王, 言言稱復讐雪恥, 不但言之於家, 乃敢言之於君父. 天下豈有如此悖逆之陪臣哉?

로 표출되었다. 이 경우 탕평책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군주이기 때문에 군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주자의 권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朱子 때 皇極을 오늘날의 이른바 蕩平인 것처럼 오해하는 자가 있어서 朱子가 辨說을 지었는데, 말이 지극히 정확하고 是非를 顛倒하고 賢否를 뒤섞게 될 것을 아주 우려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 대조해보면 하나하나 부합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도리어 朱子가 배격한 옳지 않은 말을 주워 그것을 근거로 삼아 일세를 그르치고 있는데 성상께서 금석같이 믿으셔서 世道가 날로 악화되고 人心이 날로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아부하여 구차히 수용되고 크게는 얼굴을 확 바꾸어 廉恥를 전부 잃고 利慾을 마구 쟁겨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신은 이 점에 대해 참으로 통한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유념하셔서 이 관문을 무너뜨려 옛 성인의 아름다운 말이 오랫동안 군소배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는 주머니가 되지 않게 하소서.³⁴⁾

영조에게 올리려고 준비했던 이 疏에서 도곡은 탕평과 황극의 정확한 뜻은 是非를 전도시키고 군자와 소인을 뒤섞는 정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영조의 탕평책으로는 소인들만 잇속을 챙기게 될 뿐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도곡은 영조에게 미숙한 식견으로 大聖人이 확정한 사안에 대해 감히 논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 판단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³⁵⁾ 군주라 하더라도 치열한 格物致知의 공

34) 『陶谷集』「擬上筭」, 朱子之時, 有誤解皇極如今日所謂蕩平者. 朱子爲作辨說, 語極精確, 深以是非顛倒, 賢否賢亂爲憂. 舉以證今, 一一符合. 今之人反拾朱子所剖擊之響言, 自爲窠窟, 以誣誤一世, 而聖上信之如金石, 使世道日就汚下, 人心日就陷敗, 小則偷合苟容, 大則改頭換面, 以致廉恥都喪, 利慾橫挈, 終至於亡國而後已. 臣誠痛恨於斯, 竊願聖上深加睿念, 打破此關, 毋使古聖徽言, 久爲宵小輩濟私饕利之囊橐也.

35) 여기서 말한 ‘大聖人이 확정한 사안’이란 논문의 중용하고 소론을 물리친 丙申處分을 말한다. 『陶谷集』「擬上筭」, 殿下雖聖質超卓, 聖學高明, 至於闡理久熟, 晰義明白, 恐尙有不逮於聖考者, 其可以一時未到之聖見, 敢有容議於大聖人深究詳辨之定案耶? 雖然, 聖心終若有不能釋然者, 則徐待理明義精之後,

부를 거쳐 명석한 식견을 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정책을 펴려고 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숙종과 영조 중에서 누가 더 식견이 높으냐는 누
가 제대로 노론의 입장을 두둔하느냐로 결정된다. 숙종은 丙申處分에서
노론을 중용하고 소론을 물리쳤으니 大聖人이 되는 것이고 영조는 탕평
책으로 소론도 함께 등용하려고 하니 식견이 미숙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노론은 주자학을 존송하고 있고 주자는 만고의 성인이니 노론
의 주장도 만고의 진리여서 노론의 의리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만고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朱子書』를 더 많이 읽고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알수록 자신의 식견은
높아가고 상대적으로 정적들의 식견을 낮추어볼 수 있게 된다. 주자학
이 진리라는 입장에 서게 되면 주자를 알아야 군자이고 주자를 모르는
것은 소인이다. 주자를 경시하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고 소인
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자를 모르는 소인들은 같은 조정에 설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철저하게 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런데 영조의
탕평책은 소인을 용인하지는 정책이므로 주자학에 배치되고 주자학에
배치되므로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순환논리
속에서 도곡을 비롯한 노론은 그들의 의리를 관철시켜갈 수 있었다.

『朱子大全』이 의리의 府庫로 인정된 이상 그것에 대한 정확히 해석하
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退溪는 『朱子大全』 중 서신 부분에서 발췌하
여 만든 『朱子書節要』를 대상으로 『記疑』라는 주석서를 남겼고 우암은
『朱子大全』 전체에 『筭疑』라는 주석서를 남겼는데 온전히 끝내지 못하
고 세상을 떠나며 문인들에게 이어서 완성하도록 당부했다. 그런데 도
곡이 보기에 農巖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은 훌륭하지만 나머지는 소루하
고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았다.³⁶⁾ 도곡은 「雲陽漫錄」에 그 잘못된 사례들

自底覺悟可也. 在今日, 只合存而不論, 愍置之耳.

36) 『陶谷集』「雲陽漫錄」, 退溪註釋朱子書, 名曰記疑, 此則書一類也. 尤翁盡取大
全釋之, 名曰筭疑, 未及卒功, 托諸門人, 使之續成. 其出農巖者固善, 而其他類
不免疎漏舛誤之患.

을 아주 많이 열거하였는데, 예를 들어 「論白鹿院記」의 ‘罵破’라는 단어를 『筭疑』에서 ‘욕하여 훼손한다.’라고 해석하였지만, 도곡은 ‘破’가 助辭라는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였다.³⁷⁾ 이러한 작업은 54세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세세한 주석 작업은 주자학의 권위를 선점하는 방편으로서 노론 의리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길이 되기도 하였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도곡의 학문에서 성리학이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그리고 성리학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도곡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나아가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도곡의 학문 역정에서 성리학에 대한 침잠은 54세 이후에 온전하게 나타난다. 도곡은 어린 시절 이후 줄곧 문장가의 삶을 지향하였고 54세 이후에 성리학자의 길로 조금 접어들었다.

도곡은 理氣/心性에 대한 논의를 남긴 것이 없으며 성리학이 경시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朱子書가 四書 다음으로는 진리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衛學’의 소임을 다하였다. 그는 道와 文을 일치시하여 道가 있어야 온전한 文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심정적인 견해일 뿐이고 도곡 자신이 그런 문학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곡은 주자학의 절대성, 華/夷의 구분, 군자/소인의 구분을 노론의 의리를 떠받드는 술의 세 다리로 보았다. 그리하여 주자학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론의 의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도곡 자신이 주자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진리체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자신의 수양과 윤리 실천에 큰 도움을 준다. 도곡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없애려는 영조의

37) 『陶谷集』「雲陽漫錄」, 論白鹿院記‘罵破’, 筭疑云‘罵詈毀破’, 愚意破字恐是助辭.

탕평책에 대해 주자의 진리체계를 허무는 것이자 노론의 의리를 허무는 것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의리 체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스스로 군자라고 자처한 이상 군자답게 살기 위해서 응당한 수양과 윤리실천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도덕 수양이 논적을 공격하기 위한 보루로 활용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 나쁜 경우는 소인을 제거하는 일을 자신의 수양이나 윤리실천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 일로 보는 상태이다. 이를 경우 수양이나 윤리실천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논적에 대한 증오는 깊어진다. 天地生物之心을 본질로 하는 仁의 덕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당쟁의 중심에 서있어야 했던 도곡이 그 뛰어난 文才를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노론의 의리를 대변하는 일에 치중하였던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參考 文獻>

『朱子語類』

『陶谷集』

『肅宗實錄』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기정순, 「도곡 이의현의문장론 소고」, 『한문학논집』제17집, 근역한문학회, 1999.

박은정,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송혁기,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일고」, 『한국한문학연구』제31집, 2003.

정순희, 「조선중기 고문론 해석의 문제점」, 『한국언어문학』제47집, 2001.

정옥자, 「도곡 이의현과 그의 문학관」, 『한국사론』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Abstract

Do-gok Uy-hyun Lee's Theory of Defending Neo-Confucianism
/ Jeon Byoung Ok*

This article deals with Do-Gok Uy-hyun Lee(1669-1745)'s theory of defending Neo-Confucianism. Do-gok was a key figure representing Noron(老論) in politics, as well as a quite literary stylist in Tang-Song Gomonpa(唐宋古文派) in his era. Although he was not a leader of his party-Noron Nakron, Do-gok made an avowal of Noron's Uyli(義理) by writing numerous Shindaobimyoung(神道碑銘), Myozimyoung(墓誌銘), and the like, which contained his evaluation of Noron's leading figures of the time. In his literary writing, he wrote both verse and prose evenly, but more importantly, he mostly wrote Manshi(輓詩) and Biziliu(碑誌類), which dealt with Noron's figures. He asserted that Zhuziwenzi(朱子文集) should be treated as a paragon in literature, and thus faithfully represented Noron's standpoint which rated Zhuzi(朱子) more highly than that of shaoron(少論).

The existing research of Do-gok tends to focus on his literary theory, shedding light on that he openly ranged over an extensive writing styles while he succeeded to Zhuzi's literary theory. According to these researches, it is considered that he acknowledged the merit of Mun(文) independently, while he tried to reconcile Dao(道) with Mun. In this context, some researchers claim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Do-gok's literary theory is his effort to reconcile Dao with Mun, whereas others maintained that these two elements-his acknowledgement of independent merit of 文 and his attempt to reconcile Dao with Mun-were combined contradictorily. Despite this difference, they generally

* Lecturer of Korea University / weiwozai@korea.ac.kr

see Zhuzi's literary theory as the essential feature of Do-gok's theory. That is, basically, Do-gok's literary theory, having extensive openness, was based on Zhuzi's theory.

However, I believe that the starting point of Do-gok's literary theory was not that of Zhuzi. Rather, he mainly read irrelevant text books to Dao such as Hanshu(漢書), Zhuangzi(莊子), and the like, when he started to take his literary training. He cultivated his literary ability through these books, not through SiShu-SanJing(四書三經), or Zhuzi's other works. Although it is true that Do-gok referred to Zhuzi-Daquan(朱子大全) as the basic, indispensable source of sentences, it does not mean that he took his literary training through Zhuzi-Daquan. Instead, I think, it only shows his regret late in his life, which he was misguided with his literary training. Do-gok maintained that Zhuzixue(朱子學) must be protected from attacks of heresy, but it is not because he thoroughly studied Zhuzi's theory, but because he strongly intended to defend Noron's Uyli(義理) in politics. In other words, he did not consider Zhuzi's philosophy or literary theory as perfect ones theoretically as well as aesthetically. In brief,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Do-gok's literary theory is that he tried to represent Noron's Uyli by his sentences and literary theory.

【Key words】 Do-Gok, Lee Uy-Hyon, Neo-Confucianism, TangSong-Gumun, Noron, Uyli

투고일 : 11월 5일, 심사일 : 11월 27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